

‘2026년 펀드시장 전망 및 테마분석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를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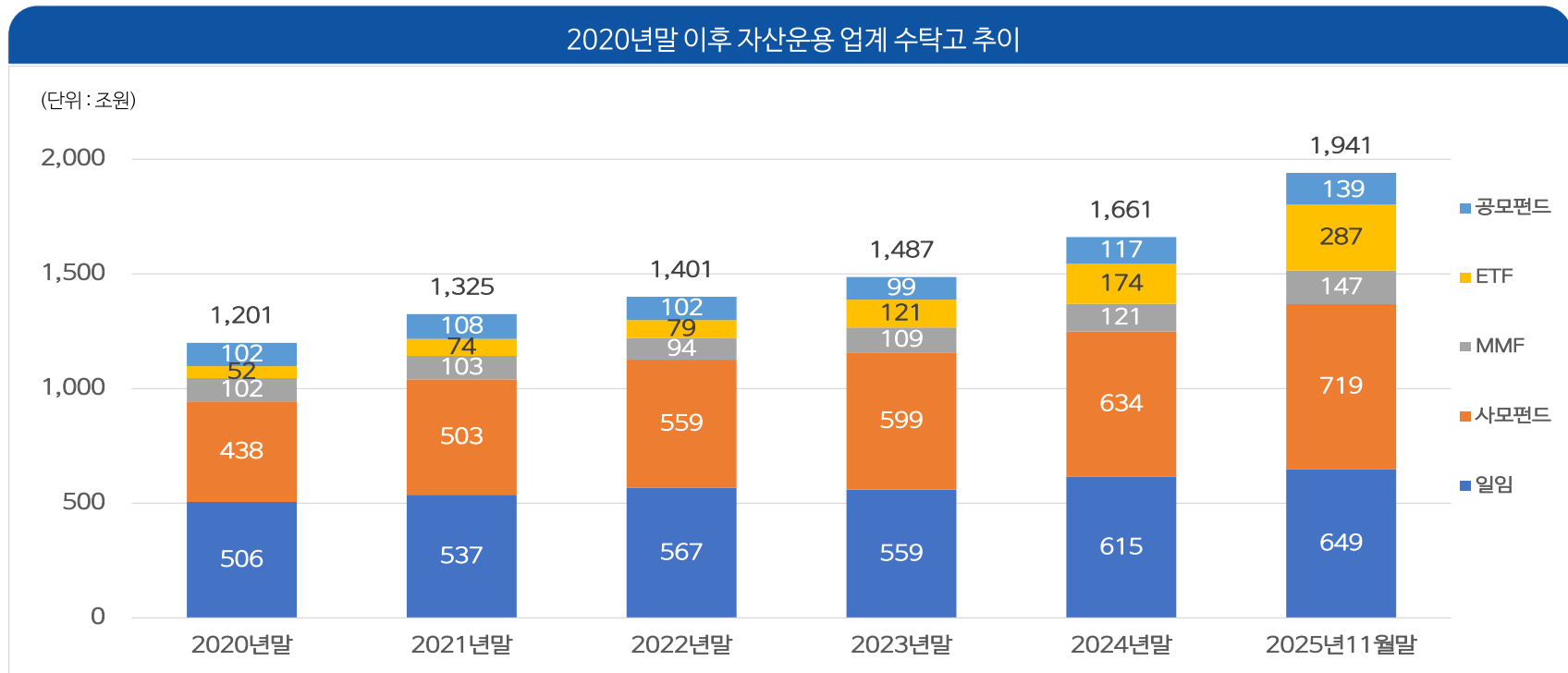
Part 1. 2025년 운용업계 및 펀드시장 분석



1-1. 2025년 자산운용시장 추이

➤ '25년11월말, 자산운용업계 수탁고는 1,941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연초대비 +280조원, +16.9%)

- (건조한 성장) 증시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률 호조와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라 건조하게 수탁고 증가(연평균 +8.6%)
- (ETF 시장의 폭발적 성장) 올해 113조원 증가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진입 장벽 축소 및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
- (공모펀드 침체) 퇴직연금 및 목표전환형 상품을 제외하면, 투자자의 외면 지속(편리성, 환금성 등 ETF 대비 불리)



* 자료: 금융투자협회, 2025년 11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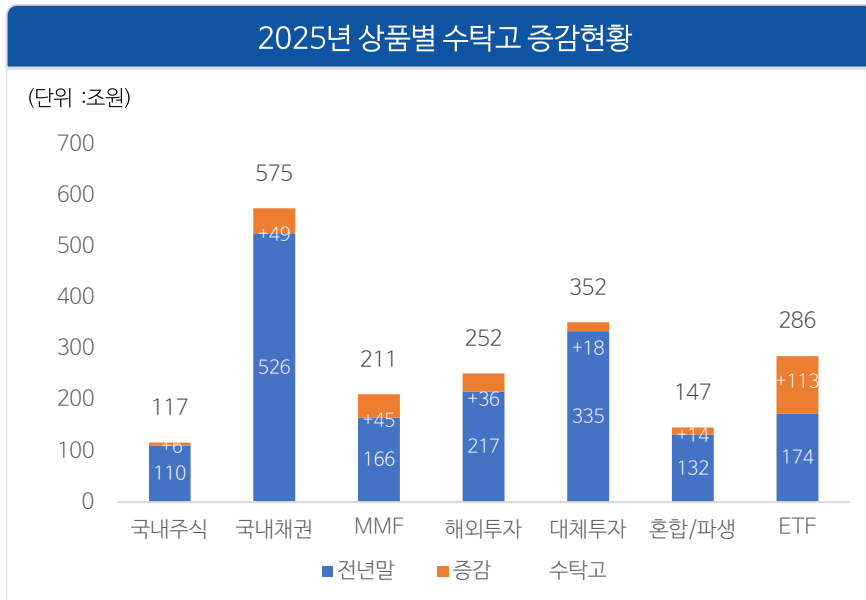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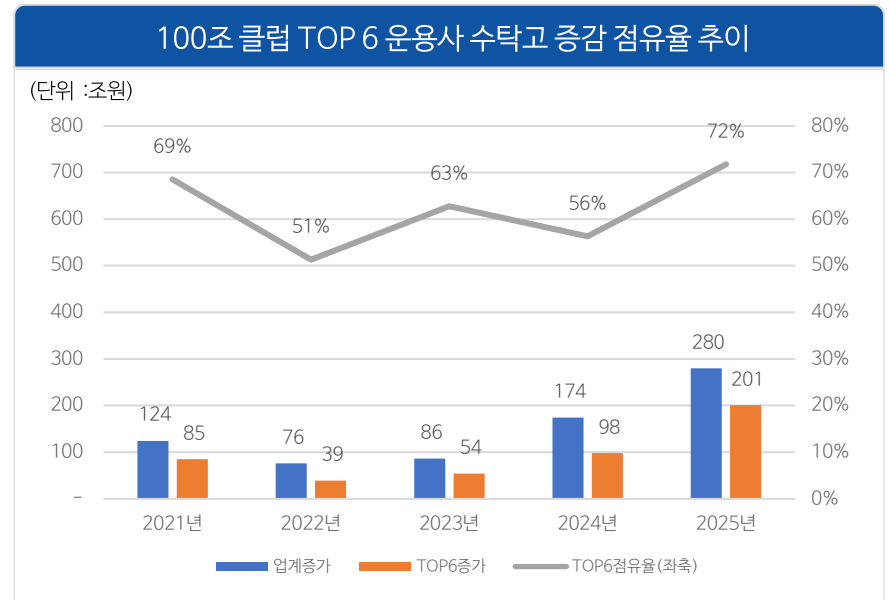
1-2. 2025년 상품별, 운용사별 경쟁 현황

▶ 투자자 유형에 따라 상품수요가 분화 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간 양극화가 확대되며 대형사로 수탁고 집중 심화

- (기관/연기금) 일임투자나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채권, MMF, 대체자산,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해 안정적 인컴 추구
- (개인투자자) 퇴직연금, HNW, 직접투자로 세분화 되면서 ETF를 통한 국내외 주식 투자를 확대
- (운용사경쟁) 계열사위탁, ETF, 퇴직연금, OCIO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경쟁 심화. 대형사로 수탁고 집중 심화



* 자료 : 제로인 펀드평가



* 자료 : 제로인 펀드평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3. 2025년 BEST 판매 상품전략 현황

▶ (리테일시장) ETF 기반 직접투자, 퇴직연금, 초거액고객으로 세분화되며 다른 상품 수요를 가짐

- (ETF 직접투자) 국내 인버스, 국내 섹터, 미국대표지수, 미국 국채 30년 등 변동성이 높은 상품 선호
- (퇴직연금) 퇴직연금 TDF펀드, 커버드콜 월지급식ETF, 월지급식 글로벌 채권형 펀드 등 현금흐름 선호
- (초거액고객) 국내주식(밸류업), 현금흐름 기반 중단기채, 목표전환형 등 선호

2025년 ETF 유형별 BEST 판매 상품전략

(단위 :억원,%)

상품유형	핵심상품전략	설정액증감(YTD)	수익률(YTD)
국내주식	국내인버스	195,312	- 48.0
국내채권	단기채권	129,932	2.6
국내주식	국내테마&섹터	122,569	50.4
해외주식	미국 대표지수	74,557	11.9
해외주식등	커버드콜 월지급식	65,002	21.1
해외주식	미국 섹터	35,446	15.8
해외채권	미국 국채30년	25,943	6.7

* 자료 : 제로인 펀드평가

2025년 공모펀드 유형별 BEST 판매 상품전략

(단위 :억원,%)

상품유형	핵심상품전략	설정액증감(YTD)	수익률(YTD)
국내채권	단기채권	72,399	2.7
국내채권	중기채권	48,137	1.8
해외혼합	퇴직연금 TDF	28,032	13.0
해외혼합	자산배분	18,061	13.5
해외주식	글로벌테크&배당	16,235	21.5
해외채권	월지급식	14,773	6.8
국내주식	밸류업	13,395	55.6

* 자료 : 제로인 펀드평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4. 2025년 ETF 시장동향

▶ (ETF시장) ETF 로의 자금유입이 지속 증가, 퇴직연금 등 절세계좌에서의 수요와 국내 주식상승에 대한 니즈 영향

- (ETF 상품분석) 2024년까지 정체된 국내주식 순자산이 가장 큰 폭 상승, 해외주식과 국내원자재(금 관련) 선호 현상 지속
- (유형별 순자산) 2024년말 대비 국내주식 약 +5조, 해외주식 약 +4조, 국내채권 약 +1.5조, 국내원자재 +0.4조 등
- (테마별 수익률) 2025년 연초이후, 국내원자력 >> 국내방산 >> 시전력인프라 >> 국내조선업순으로 국내 테마ETF의 수익률 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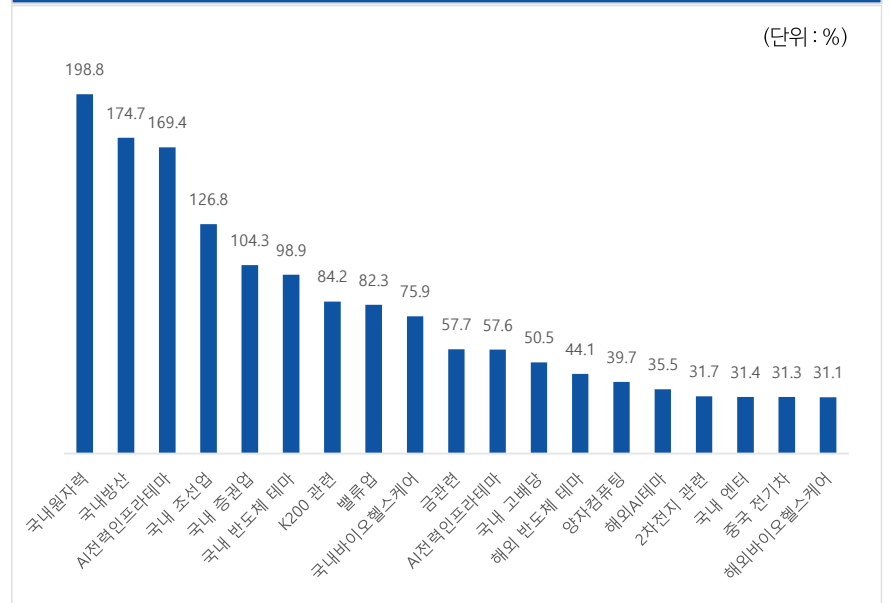
2025년 ETF 유형별 순자산 증감

(단위 :십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2.12	
국내	국내기타(금리)	246	6,808	22,527	28,427	28,429
	국내부동산	123	233	337	723	1,762
	국내원자재	10	43	110	623	4,743
	국내주식	45,186	37,413	45,228	43,084	92,133
	국내채권	9,006	12,984	23,891	32,961	48,932
	국내통화	271	462	455	540	644
	국내혼합자산	151	151	178	239	856
해외	해외기타(금리)	-	-	652	1,269	1,639
	해외부동산	287	191	184	265	296
	해외원자재	893	721	640	626	1,345
	해외주식	17,172	18,120	23,748	55,459	95,909
	해외채권	413	970	2,450	7,032	10,057
	해외혼합자산	209	416	666	2,316	6,428
총합계	73,967	78,512	121,066	173,564	193,172	

* 자료 : 데이터가이드, 2025년 12월 12일 기준, NH아문디자산운용

2025년 ETF 테마별 수익률



* 자료 : 데이터가이드, 2025년 12월 12일 기준, NH아문디자산운용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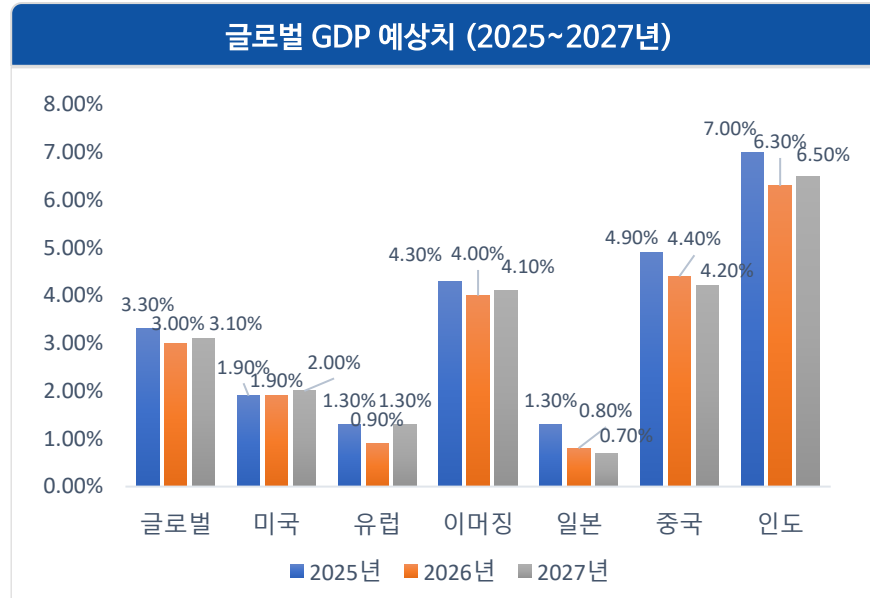
Part 2. 2026년 국내외 자산시장 전망 (Hous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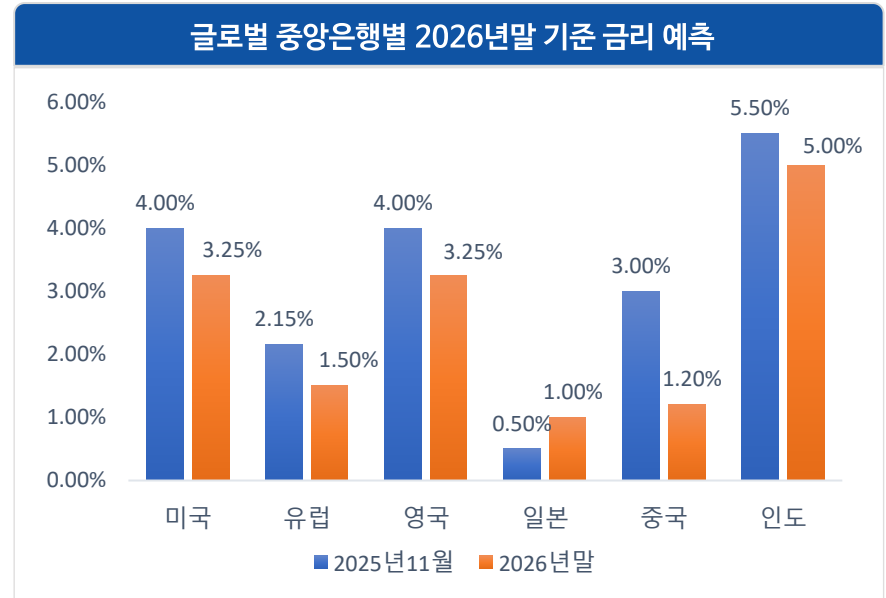
2-1. 글로벌 시장 환경

▶ 글로벌 통화· 재정정책의 완화 기조가 확산되며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

- (통화정책) 글로벌 중앙은행의 **점진적 금리인하** → 글로벌 유동성 확대, 부동산·소비·소형주 등 금리 민감 섹터에 우호적 환경 조성
- (재정정책) 미국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BBB)”을 포함해 주요국이 감세, 지출 확대 등 **완화적 재정정책을 추진** → 성장둔화 완충
- (GDP성장률) 2026년 글로벌 GDP성장률은 3%로 2025년보다 다소 낮아지지만, 침체보다는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리**라는 시각 우세
- (성장요인) 생성형 AI, 자동화 등 기술 혁신과 AI 투자가 투자·생산성 사이클을 변화 → AI CAPEX가 확대하고 **기존 경기사이클 연장**
- (위험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긴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에너지, 임금, 미국 재정 등) 요인 상존
→ 변동성 국면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자산, 지역, 섹터를 폭넓게 분산 투자하며 헤지 전략 병행이 필요



* 자료 :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Invest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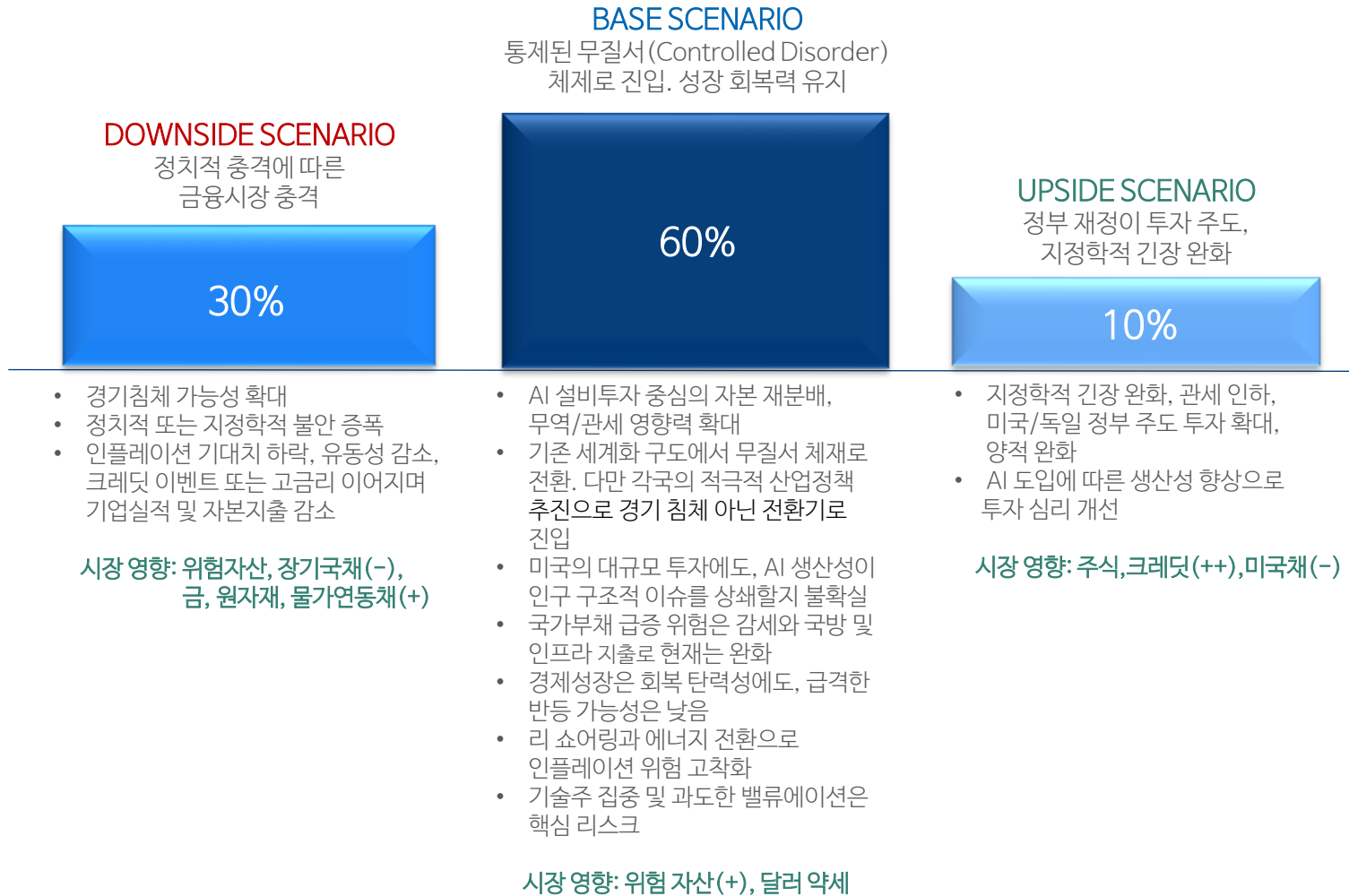


* 자료 :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Investment Outlook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시장전망 시나리오








* 자료 :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Investment Outlook “Keep it turning”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가별·지역별 자산시장 전망

주요 국가 및 지역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확대 • 경기 연착륙과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주식시장 유리 • 빅테크와 S&P500지수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여 동일가중 전략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중립, (투자등급채권) 중립 • (국채) 단기 국채는 더 높은 금리 레벨을 대기하는 것이 적절 • (회사채) 투자등급채권의 스프레드는 역사적 저점, 펀더멘탈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중립, (하반기) 비중 확대 • 하반기 독일 재정집행 및 ECB 금리인하 시 중소형주 유망 • 유럽 중소형주는 미국 관세 영향이 낮고, 유럽 통화정책과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수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비중 확대, (투자등급채권) 비중 확대 • (국채) 2026년 중반까지 2회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나, 아직 반영되지 않아 단기물 수혜 예상 • (회사채) 기업의 방어적 재무구조, 예년 수준의 공급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스프레드 축소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 연준 및 EM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예상 • 지정학적 변화 및 미국 관세 영향 등에 따른 선별적 투자 •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일부 아시아 국가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C) 비중 확대, (LC) 최선호 • (HC) 스프레드 축소 상황에서 고수익 채권에 대한 선별적 선호 달러화 발행 EM 로컬 채권에 대한 전망 긍정적 • (LC) 인플레이션 관리, 통화정책 효과로 현지 통화 채권 선호도 상승 중동/아프리카 최선호. 중남미 차선호, 아시아 선별적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 (향후 포지션 상승 여지 높음) • 낮은 채권수익률에 따라 본토 주식시장 수혜 예상 • 글로벌/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자금유입은 부진 가능성 • 명확한 비교우위를 보이는 전기차 밸류체인, 신재생에너지, AI/테크로 선별적 자금 유입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 장기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소 긍정적 • 기간설비 인프라 프로젝트, 글로벌 공급망 연계 제조업, 핀테크 선호 	-

* 자료 :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Investment Outlook "Keep it tu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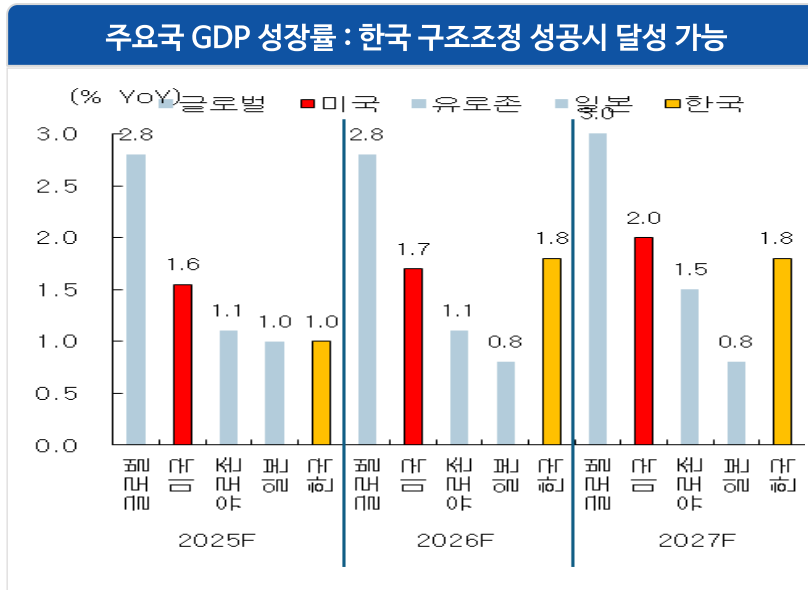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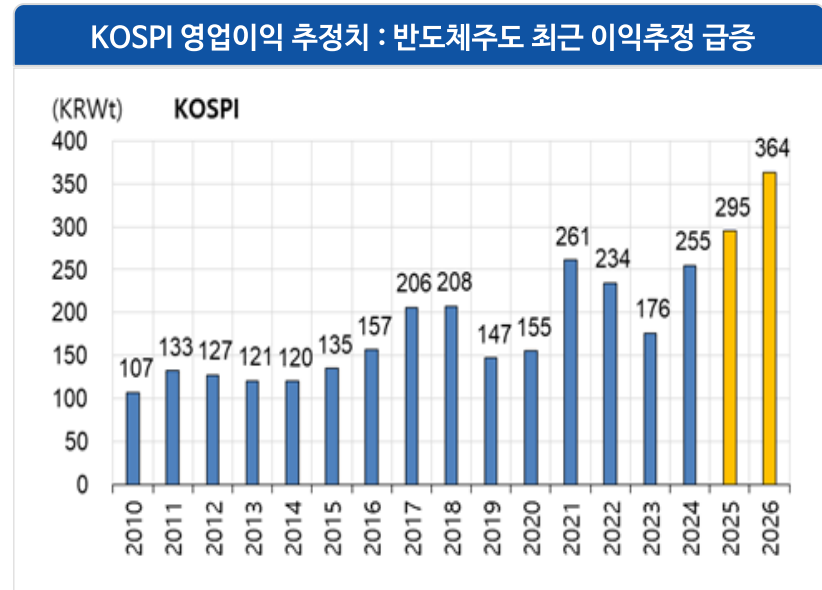
2026년 한국 주식 시장전망

■ 시장전망 주요 투자 포인트

- 미국, AI 혁신의 주체**: 미국은 AI발 혁신의 주무대이며, 투자의 핵심지역 역할 지속 예상
 금리 인하 효과, 투자 증가로 2026년 성장 전망 긍정적. 고용악화 및 중위소득 이하 소득 부진으로 금리인하 유인 작용.
 Valuation 부담이 시장 하락 트리거는 아님.
- 한국 반도체 업사이클 재개, AI agent 시대 진입으로 추론의 시대 도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HBM 등 AI 관련에 집중
 →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 유발 → 커머리티 DRAM 가격 상승, 수익성 회복 본격화 전망 (공급부족 해소는 27년 부터)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각종 자료제공기관 참고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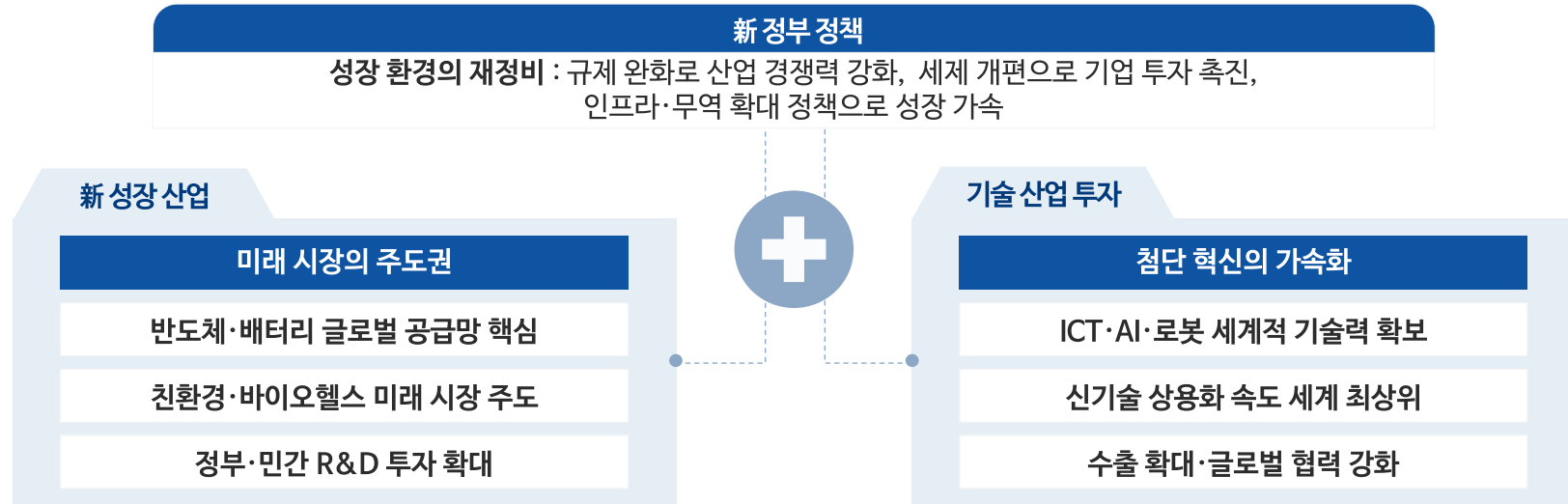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수혜 기대

■ 새 정부의 규제 완화·세제 개편·인프라 확충 정책 등으로 기업 성장 환경이 빠르게 개선 중

-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은 AI 반도체, Bio Healthcare, Contents, Defense, 친환경 Energy (배터리, 원자력), 피지컬 AI(Factory) 등에 장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새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시너지 예시]



* 자료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금리전망

▶ 주요국 금리 인하기 종료 및 확장재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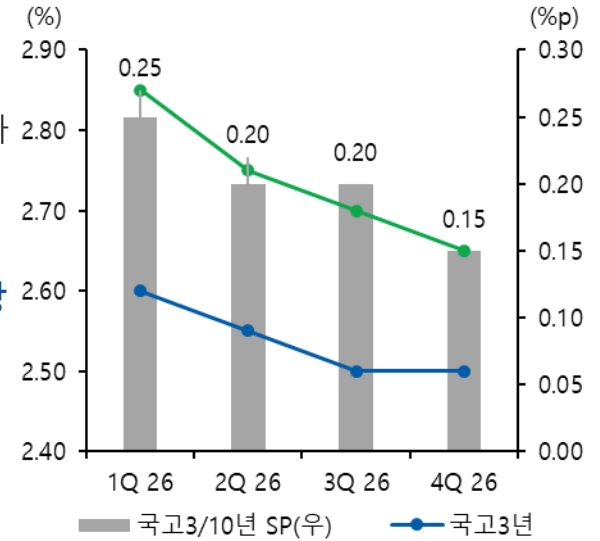
- 주요국 금리 인하기 종료되는 가운데 확장재정에 따른 정부부채 우려 지속 예상

▶ 미국: 관세에 따른 상품물가 상승에도 고용 및 소비 둔화로 인플레이 우려 완화

- 미국 경기는 고용 둔화에도 AI 투자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에 부의 효과 나타나며 가계소비의 둔화는 제한되어 연착륙 예상
- 중간선거 앞두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강화되며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

▶ 한국: 내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둔화에 따른 1.8% 성장, 연내 1회 인하 전망

- 건설투자 부진 해소 등 내수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조기선적 효과 소멸 등에 의해 수출 경기는 둔화되며 '26년 성장률 1.8% 전망. '26년 물가는 1.9% 상승 전망
- 통화 완화의 경기 개선 효과 확인되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되었으나, 금리 인상 가능성 제한되는 가운데 WGBI 편입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되며 금리 하향 안정화될 전망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구분	Market Driver	GDP	CPI	기준금리	국고3년	국고10년	커브
1분기(E)	금융안정 이후 마지막 금리 인하,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수요 유입	1.8%	1.9%	2.25%	2.60%	2.85%	Steep
2분기(E)				2.25%	2.55%	2.75%	Flat
3분기(E)	경기 개선세 지속되며 GDP 갭 해소, 정부 재정지출 정상화			2.25%	2.50%	2.70%	Neutral
4분기(E)				2.25%	2.50%	2.65%	Flat

* Note: GDP 및 CPI는 전년대비 기준, 기준금리는 기말치, 국고3년 및 10년 금리는 평균치 기준

* 자료 : NH-Amundi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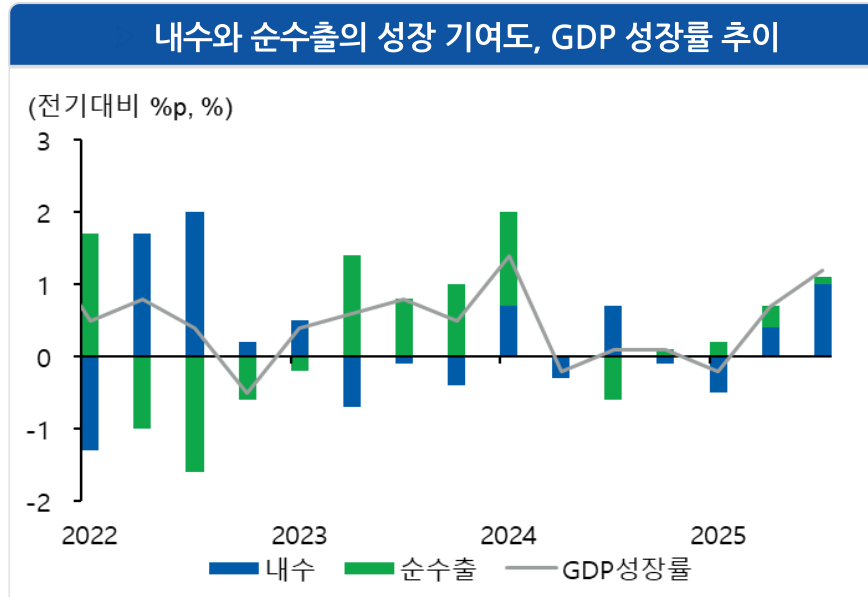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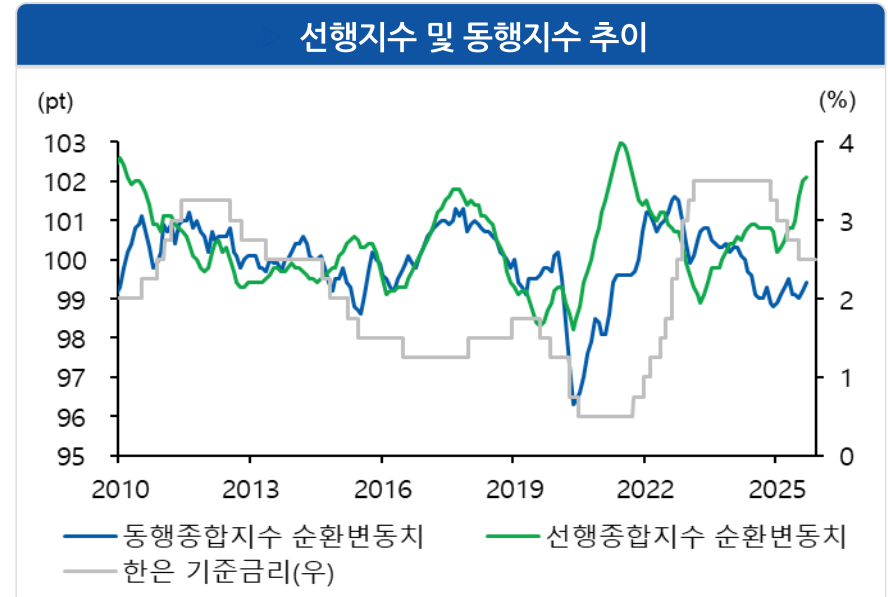
韓 '26년 1.8% 성장 예상

▶ 반도체 중심 견조한 수출 및 완만한 내수 성장으로 경기 회복세 지속

- 韓 '25년 하반기 경기는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 속 견조한 수출경기가 반등세를 견인
- '26년 경제도 무난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①경쟁적인 글로벌 AI 투자 흐름 속에 견조한 반도체 수출 지속, ②글로벌 확장재정 속 韓 확장재정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③건설경기 회복 흐름 시작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에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 이후 반등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한국은행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art 3. 2026년 국내 펀드시장 전망



2026년 주요 성장 요인

1 정책수혜+세계개편.. Kospi & Kosdaq..
코스피 5,000시대, 코스닥 활성화, 배당제 개편, 밸류업 등 정책 추진 효과 기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 모멘텀, 글로벌 유동성에 기인한 국내외 시장전망 상향

AI, 로봇틱스, 원자력 등 메가트렌드 투자 확대
AI 산업의 밸류체인 확산과 국가간 AI 패권경쟁 심화.
AI기업의 Capex확대 지속과 정책 지원으로 AI기술발전 사이클 유효

2

3 미국 재정/통화 정책의 변화 속 글로벌 투자기회 발굴
기업 실적 성장세, 연준 금리인하에 기인한 달러 약세 예상.
경기와 실적이 긍정적인 미국과 한국, 달러 약세 수혜가 예상되는 EM 등

고객 맞춤형 인컴·솔루션 상품 니즈 지속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성향 강화: 목표전환형, 손익차등형, 인컴형 상품 인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모운용사의 해외 자금 위탁 및 사모투자재간접형 협업 상품 확대.

4

5 인플레이션이 만든 투자자의 고위험 추구 성향 강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 투자자의 성향이 고위험 성향으로 변화.
특히, 전 연령대에서 은퇴시 필요자산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ISA 등 세제혜택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심리 확산.

테마형과 액티브형 ETF의 고성장시대 진입
글로벌 펀드시장은 펀드에서 패시브ETF로, 패시브ETF에서 액티브ETF로 빠르게 진화.
테마ETF는 높은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관심 아래 수요 증가.
삼성액티브, 타임폴리오 등 액티브ETF 전문 운용사의 존재감 확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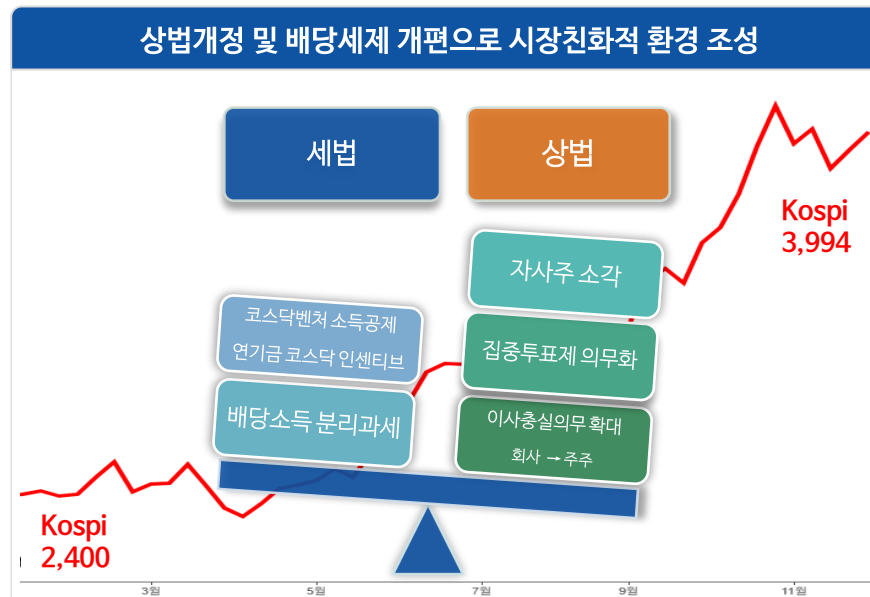
7 모험자본 공급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IMA제도 시행, BDC 신설, 코스닥벤처 소득공제 확대,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무 부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디지털 자산TF를 통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구체화로 향후 다양한 가상자산 상품의 출시 가능성 확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2. 정책수혜+세제개편.. Kospi & Kosdaq..

- ▶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 모멘텀, 글로벌 유동성, 증시활성화 정책 등이 2026년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 → 코스피 5,000시대 도약
 -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제도, 정책적 지원 확대 → 상법개정, 세제개편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밸류업 확대
 - 코스닥 활성화 방안 검토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연기금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민성장펀드 활용 등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추진 → 해외 투자자 신뢰도 제고, 국내시장 투자 확대 유인 제공
 - 해외 자금의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활용 투자 확대 → '25년 UAE국부펀드, 밀레니엄, 아이코닉, MIT 등 약 8천억원 이상 투자
 - 반도체 슈퍼사이클, 증시활성화정책 등으로 '26년 주가상승 기대 : 국내외 Kospi 밴드 3,500~7,500 (JP Morgan 6,000, 비중 확대)
 - 아이디어 : 배당주, 밸류업, 반도체, 방위, 지주, 전력, 조선, IT, MSCI Korea지수(코스피 대형주), 코스닥(선별적 투자)



* 자료: NH아문디자산운용, 2025년 12월 2일 기준

MSCI DM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노력

접근성항목	선진시장 (DM)		신흥시장 (EM)	
	호주	일본	한국	태국
외환시장 자유화	++	++	-	+
투자자 등록과정	++	++	-	++
정보흐름	++	+	-	++
청산 및 결제	++	++	-	+
이전 용이성	++	++	-	++
투자자산 활용도	++	++	-	++

※ 평가지표: '++' (이슈 없음), '+' (특별한 이슈 없으나 개선 가능), '-' (개선 필요)

개선추진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도입 →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
- 영문공시 의무화 등 기업공시 체계 정비 → '26년 5월 의무화 시행 등
-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26년 1월 2일 시행)

* 자료: MSCI, 자본시장연구원, MSCI 한국 지적사항에 대한 역대 주요국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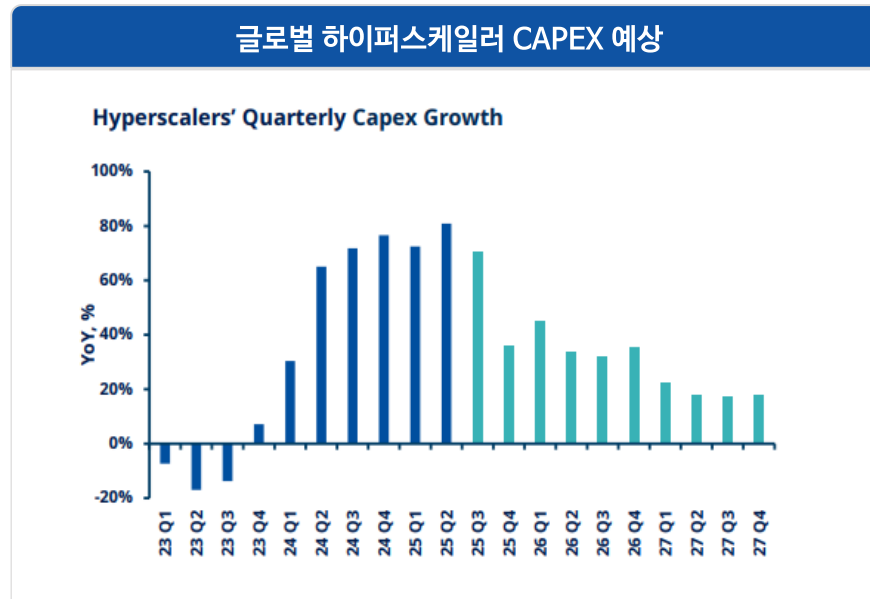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3. AI, 로봇틱스, 원자력(SMR) 등 메가트렌드 투자 확대

▶ AI 산업의 밸류체인 확산과 국가간 AI 패권 경쟁 심화 → AI 관련 업종과 테마 투자에 대한 메가트렌드 형성

- AI 밸류체인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 반도체, 전력, 데이터센터 인프라 → AI 소프트웨어 → 로봇틱스, 모빌리티, 양자, 전력 수혜
- AI 기업들이 주도중인 CAPEX 투자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며,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미국-중국 정부의 기술 투자 지속
 - 미국은 AI 액션 플랜을 통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내년 로봇 분야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전망
 - 중국은 2026년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AI+'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여, AI 기술 자립을 위한 국산화 진전 지속 → AI, 반도체 등
- AI 기술 발전 사이클에 투자하는 주요 상품 출시
 - 1) 인프라 중심 : 반도체,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클라우드인프라, 미국SMR, 국내원자력
 - 2) 응용 밸류체인 중심 : 미국AI소프트웨어, 글로벌피지컬AI, 미국휴머노이드로봇, 차이나시반도체



* 자료: Amundi Investment Institute, Datastream, MSCI, Data as of 11 December 2025.
Hyperscalers: ORCL, AMZN, MSFT, GOOGL, META.



* 자료: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Data as of 12 November 2025.
PE Ratio is the 12 Month Forward P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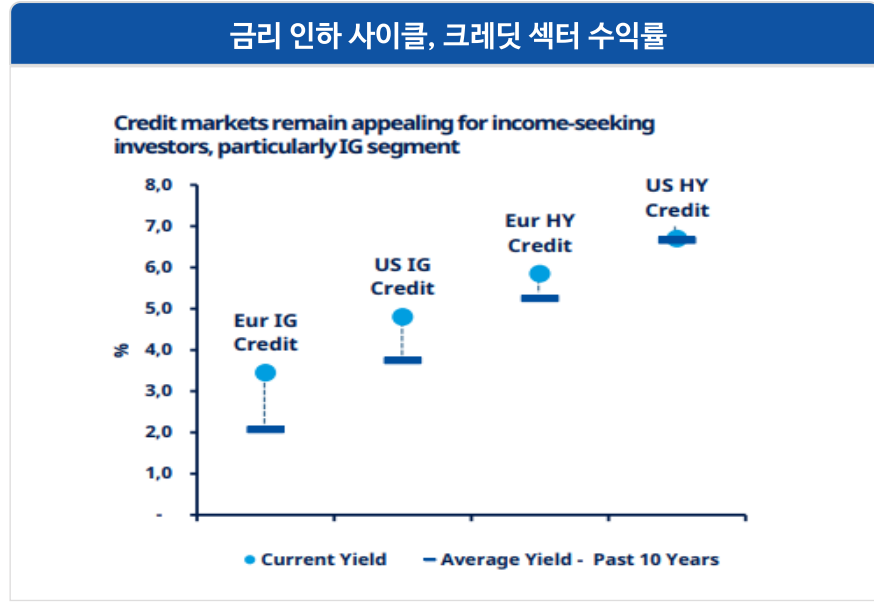
3-4.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 : 금리·환율·유동성

▶ 금리 인하, 물가안정, 유동성 확대, 경제성장, 달러약세 등이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에 긍정적 효과 견인

- (금리) 소비지표, GDP, 실업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미국 금리는 3.25%까지, 유로존 금리는 1.5%까지 **완화 가능**
- (물가) 미국 물가상승률은 안정적 흐름 기대되나, 관세 등 상승 리스크 상존 → 파월 발언(관세에 따른 단기적 압력 제외시 물가상승률 낮음)
- (유동성) QT 종료에 따라 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 가능, 親트럼프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인선시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 적극적 변화
- (환율)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전통적인 **달러 약세 요인** → 글로벌 경기와 실적 방향 모두 긍정적, 특히 신흥국 성장 프리미엄 매력적
- (아이디어) 완화적 통화정책, 긍정적인 경제성장세가 2026년 글로벌 주식과 채권시장에 우호적 환경 조성, 금은 헷지수단 활용
 - (주식) AI, 반도체, 금융, 산업, 헬스케어, 밸류, 중소형주 선호, 지역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한국, 인도, 중국(ESS, 전력설비, AI) 등
 - (채권) EM 로컬통화, EM 달러표시, EU IG 크레딧, 하이일드(미국, EM 등), MBS(Agency), 국내 단기채, 국내 초장기(WGBI 수급 영향) 등



* 자료: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Quarterly data as of September 2025.



* 자료: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Data is as of 5 December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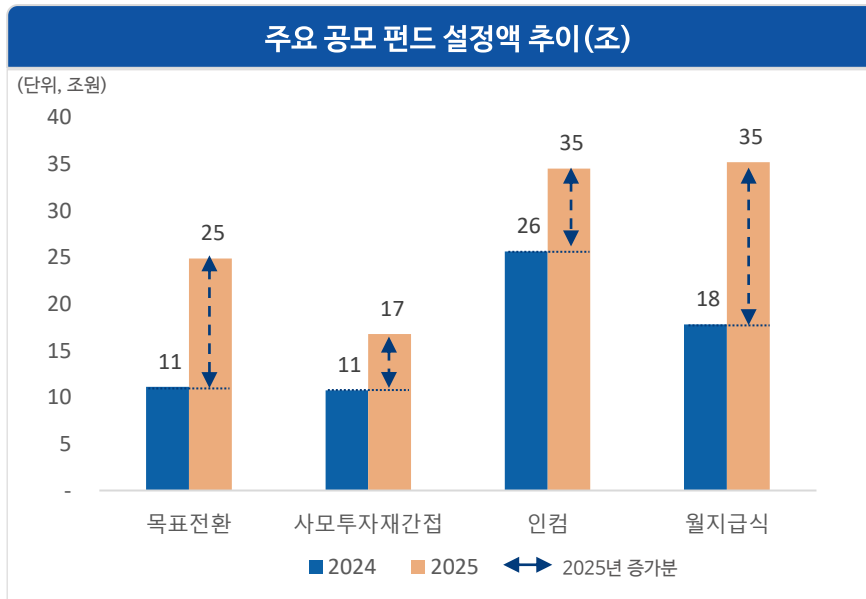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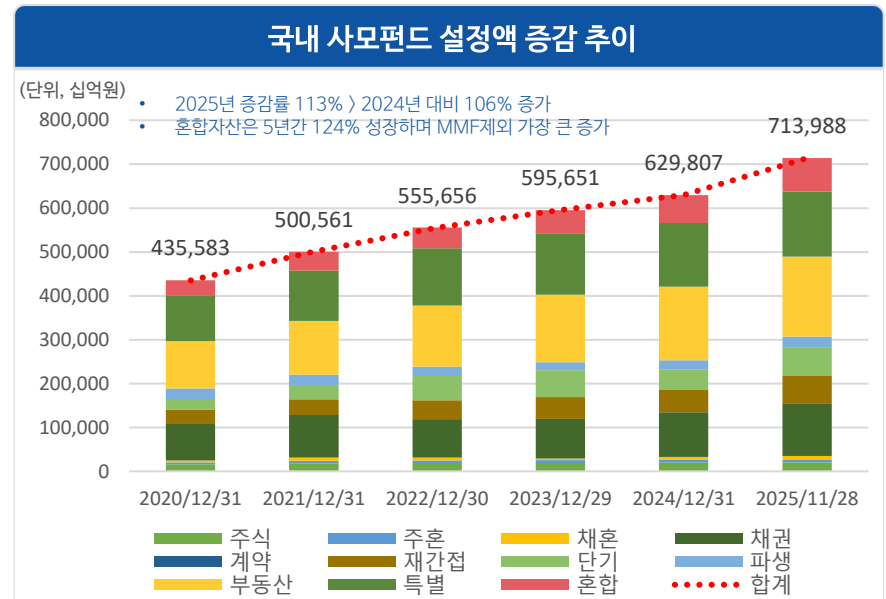
3-5. 고객 맞춤형 솔루션 상품 니즈 지속

▶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성향 강화 : 목표전환형, 사모투자재간접형, 인컴&월지급식 상품의 부상

- (목표전환형) 중위험·중수익 니즈 확대되며 시중은행, 증권사에서 신규 목표전환형 상품 출시 증가
- (사모투자재간접형&헤지사모펀드) 헤지 전략을 활용한 재간접 상품 출시, 전문성과 우수성을 보유한 사모운용사와의 협업 확대
 - 사모 시장에 대한 리테일 투자자 접근성 확대, 국내시장 상승 전망에 따른 UAE국부펀드, 미국대학기금등의 국내 사모 운용사 위탁 증가
- (손익차등형) 원금 손실 부담이 큰 보수적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손익차등형 구조 선호 트렌드 지속
- (인컴&월지급식)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 증가 → 2025년 TIF, 멀티인컴, 하이일드, 월배당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세 뚜렷
 - 인컴 수요는 1)시장 불확실성과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경계 2) 연금시장에서 인출기(은퇴 준비기) 전환 등에 기인
 - 배당주, 하이일드, 멀티인컴, 리츠, 커버드콜, MLP 등 인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상품 선호



* 자료: 금융투자협회, 2025년 11월 30일 기준



* 자료: 금융투자협회, NH아문디자산운용, 2025년 12월 1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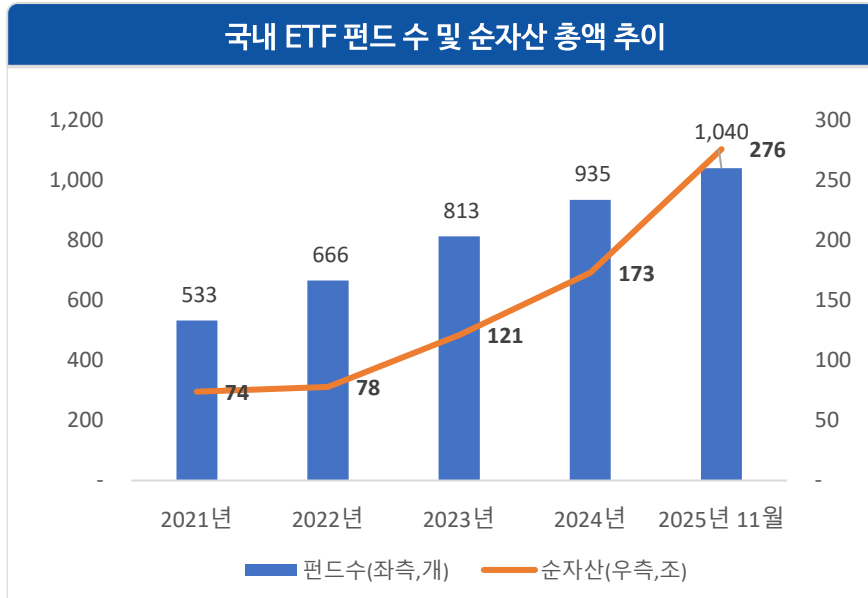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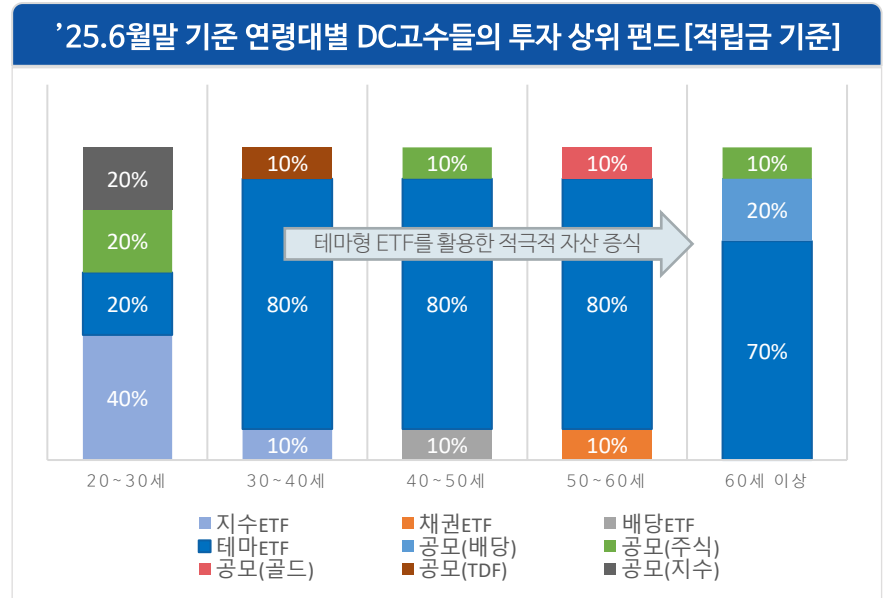
3-6. 절세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트렌드 확산

▶ 절세 계좌(ISA·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확대

- 2025년 국내 ETF 순자산은 연초 대비 116조원 증가(YTD +67%)하며 급속 확대(12월 4일 기준). 전체 공모펀드 시장의 46% 차지
- 중개형 ISA: 계좌 수가 10월 말 589만 개로 증가(YoY +22%)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및 기업 퇴직연금 유형 전환(DB→DC)으로 ETF 수요 증가 견인
- 절세계좌 내 인컴 ETF(월 분배/커버드콜 등) 수요 확대. 퇴직연금 안전자산 비중(30%) 준수를 위한 혼합 ETF(주식+채권)도 상장 증가
- 상위 수익률을 기록한 DC 투자자들은 미국 대표지수 및 국내 테마주식 ETF 활용. 20대는 미국 대표지수, 30대 이상은 테마형 선호
- 2026년에도 절세 계좌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며 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 예상
- 투자자 : 급격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절세계좌내 미국, 성장, 테마 ETF 투자를 급격히 확대 → 사회공감대 확산 분위기



* 자료: 금융투자협회, 2025년 10월 30일 기준



*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11월 27일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 II”
적립금 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퇴직연금 DC가입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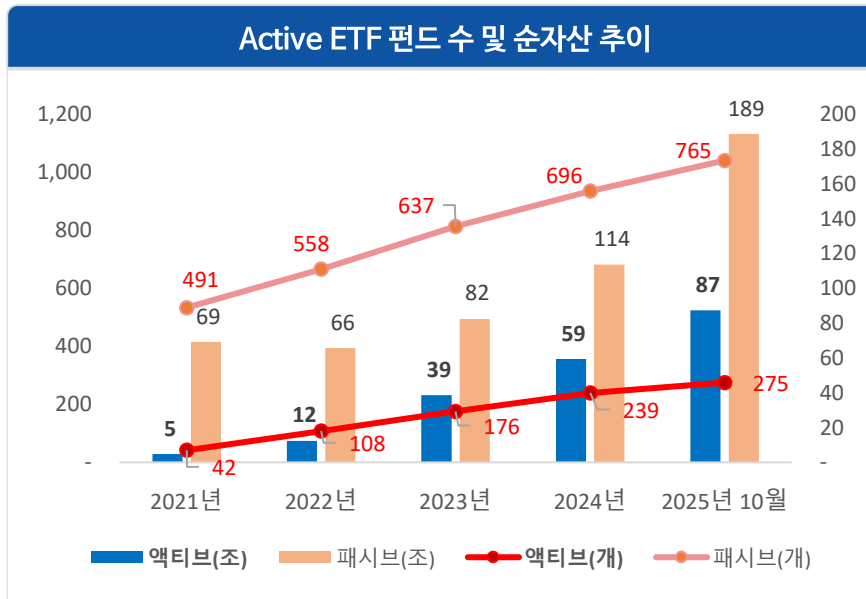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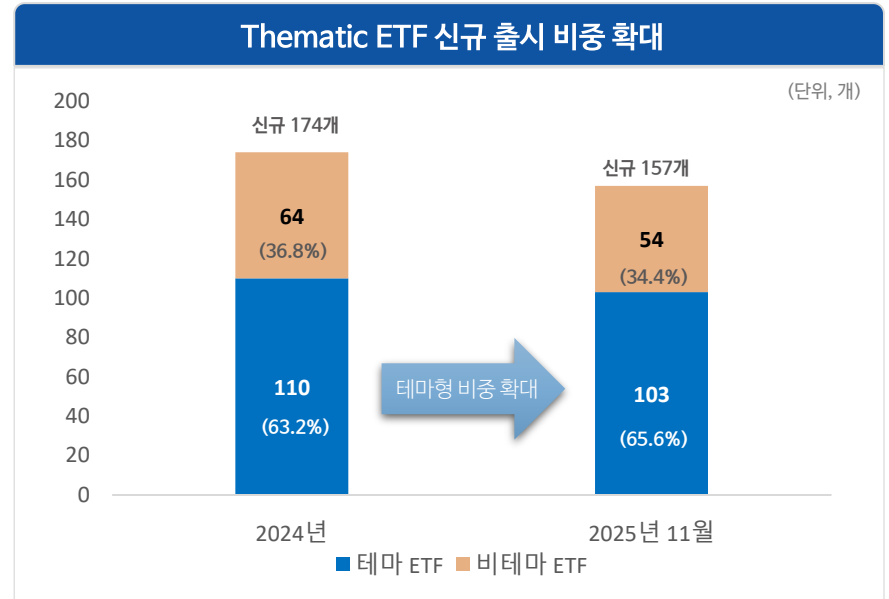
3-7. 테마형/액티브 ETF의 성장

▶ 알파수익을 추구하는 테마형/액티브 ETF는 2026년에도 성장 지속 예상

- 특정 업종의 대형주 위주로 상승한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 2025년은 테마형 및 액티브 ETF에 자금 유입 가속화
- AI/반도체, 조선·방산·원자력/전력인프라, 로봇틱스 등 테마 ETF 수익률 우수. 주도 테마의 순환매로 액티브 ETF 성과도 뚜렷
- 액티브 ETF 종목 수는 전년 말 239개 → 275개 증가. 특히 액티브 ‘주식’ ETF 순자산은 연초 대비 194% (13.7조원)
- 테마형·액티브 ETF는 2026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도화·성장 지속 예상 → 타임폴리오 등 액티브 전문 하우스 존재감 UP
- 가상자산 테마 ETF는 규제 해소 및 인프라 마련 후 도입될 것으로 기대
- 2026년 액티브 트렌드 : 전력기기, 드론, 미국전략자원 등 미래 신성장 테마와 액티브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ETF가 확대 될 전망



* 자료: KRX, 금융투자협회, 2025년 10월 30일 기준



* 자료: 펀드닥터, 2025년 11월 22일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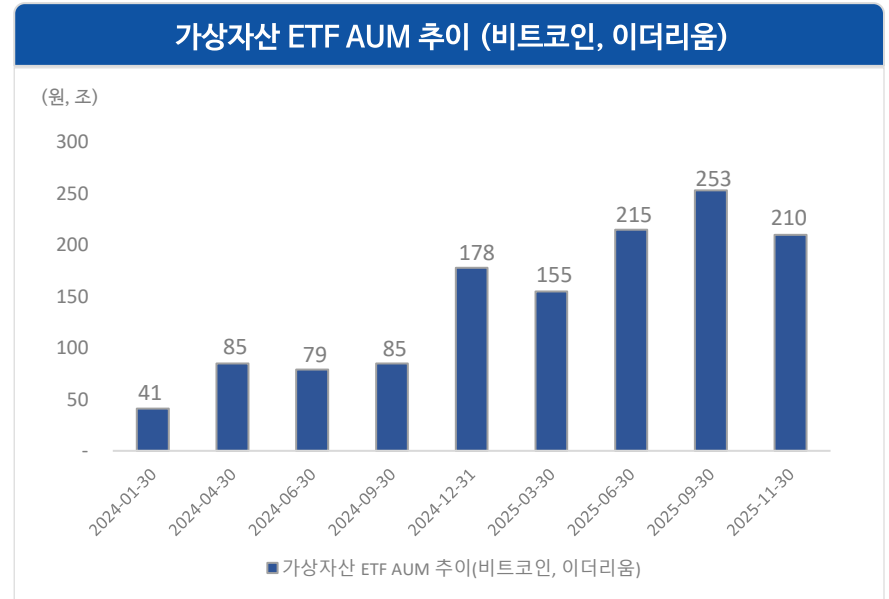
3-8. 모험자본 공급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 모험자본과 디지털금융 생태계 단계적 조성

- (모험자본) IMA제도 시행, BDC 신설, 종합투자사업자 공급의무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
 - 종합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IMA·국민성장펀드·BDC 조성 → 모험자본 투자유도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및 우선배정 확대, 특례상장 완화 검토, 연기금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 코스닥 등 자본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 RWA 완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벤처투자 허용 등 규제 및 감독 개선 → 모험자본의 투자 영역 확대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TF를 통하여 디지털자산2단계 입법,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검토 등 제도 기반 마련 추진
- (아이디어) 1)BDC , 코스닥벤처펀드 2)가상자산 관련 기업, 현물 추종 인덱스 재간접, 선물 ETF 투자 펀드(규제 완화時)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 자료: Coinmarketcap, 2025년 12월 5일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art 4. 펀드시장 관심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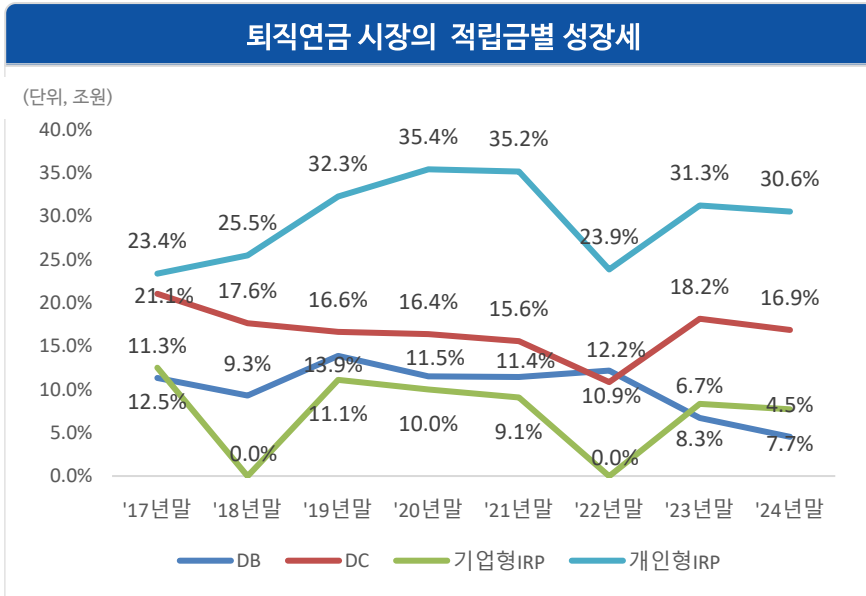
4-1. 퇴직연금 DB 시장 변화, 서학개미 따라잡기 현상 확대

▶ 퇴직연금 DB 시장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환 인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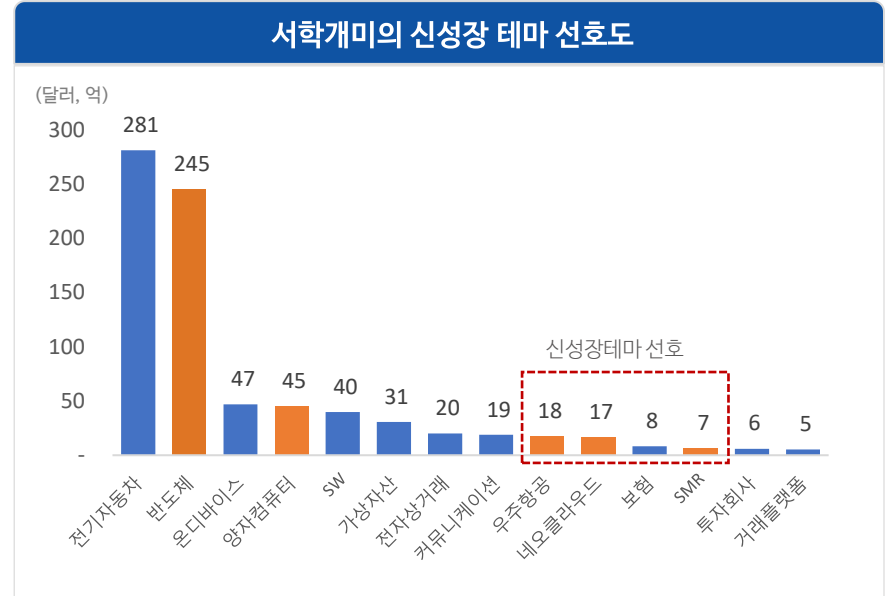
- (퇴직연금 DB시장의 변화) 기업의 DB 적립 운용이 채권펀드 중심의 안전자산 편중에서 자산배분, 인컴 펀드 등 중위험 중수익으로 이동
 - 금리인하 국면, 안전자산 수익률 하락으로 기업의 적립금 추가 부담 증가 → 위험자산 비중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기업의 투자전략 재편의 필요성 증가 → 기존 채권 중심에서 대체자산, 해외자산, 장기채 등으로 상품 다변화
 - 경기둔화 동반시 현금흐름 부담, 할인율 하락으로 인한 회계 부채 증가, 금감원 100% 적립 규제 준수 어려움 발생 → 맞춤형 솔루션 상품 필요

▶ 서학개미의 투자방향이 국내ETF와 펀드투자자의 나침반 역할

- (서심이 편심으로) 서학개미의 종목선정과 투자성과가 SNS,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고, 밴드왜건 효과로 관련 ETF와 펀드판매 지속
 - (상반기) 아이온큐, 리제티컴퓨팅 등 양자컴퓨터 테마에 대한 관심 집중 → 차기 신성장 테마로 장기 투자 종목으로 투자자 자금 유입
 - (하반기) 우주, 항공, 네오클라우드, SMR 등 미국 정책 수혜 종목 인기 → 트럼프 정부의 최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
 - 우주항공, 메디컬, SMR 등은 금리인하, AI연계 등으로 관심 확대 → 국내 투자자는 동일 테마 ETF를 활용하여 투자비중 확대 예상



*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2025년 12월 19일 기준



* 자료: KSD 세이브로, 2025년 12월 10일 기준, Top50 중 미국상장종목대상 (ETF, 리츠 제외)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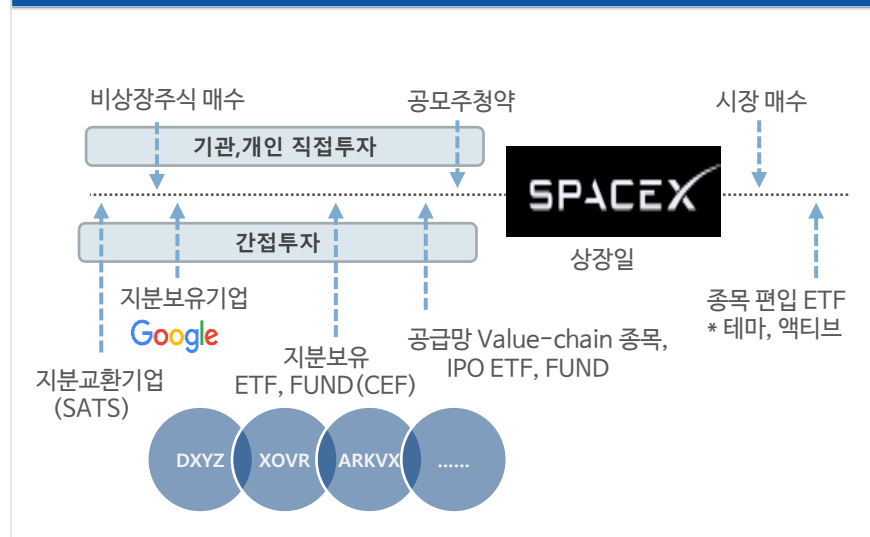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2. 미국 IPO 기대감에 따른 수혜는 어디로?

▶ 미국 IPO, 2026년의 화두, SPACE X가 시작하다.

- (미국 IPO) 2026년 미국의 IPO 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기대
 - 미국 IPO시장에는 장기 성장성이 높은 **스페이스X (우주), 안드릴(방산), OPEN AI(인공지능), 훌텍(원자력)** 등이 현재 IPO를 검토 준비 중
 - 특히,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자들의 직간접 투자 방법에 대한 관심 증가
 - IPO 직접투자: 국내외 증권사 IPO청약, 상장당일 시장 매수
 - IPO 간접투자: 지분보유기업, 지분보유펀드(ETF포함)에 투자
 - 알파벳, 피델리티, 에코스타, DXYZ, XOVR 등
 - IPO 밸류체인투자: 우주비행 및 로켓설계기업, 방위산업 기업 등
 - 로켓랩, 스페이스모바일, 팔란티어 등

SPACE X와 같은 미국IPO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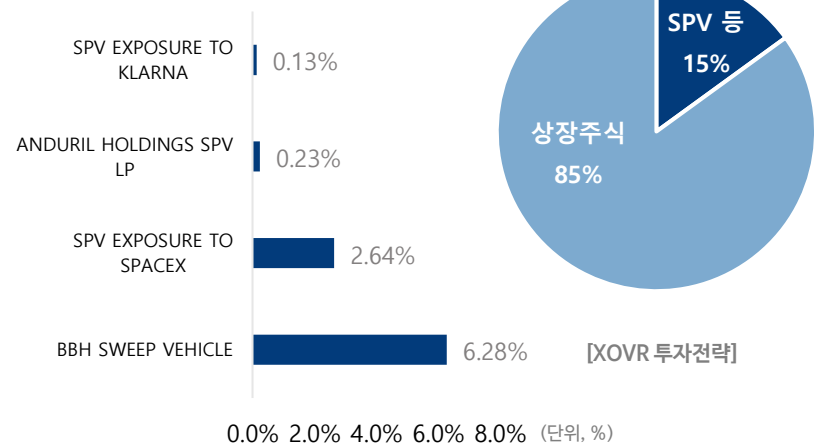
* 자료: NH아문디자산운용

▶ 미국 IPO에 미리 투자하는 ETF XOVR 분석

- (IPO 비상장기업투자 ETF) 미국대형주+비상장기업 투자 ETF
 -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ETF(2024년 8월 전략변경)
 - (투자전략) 차세대 메그니피센트 기술 엣지 종목 30개 기업에 투자하며,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SPV를 일부 편입하여 IPO 단계에서부터 투자자에게 비상장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크로스오버 액티브 ETF
 - (편입종목) 스페이스X, 안드릴, KLARNA 등 비상장 SPV등 편입
 - (DXYZ와의 비교) DXYZ는 폐쇄형 펀드로 비상장기업 지분 직접투자 펀드로 스페이스X 등 비상장기업을 직접 보유

ERSHARES Private-Public Crossover ETF 사모 노출도

SPV 등 비중(비상장기업 투자)



* 자료: ERShares, NH아문디자산운용, 2025년 12월 19일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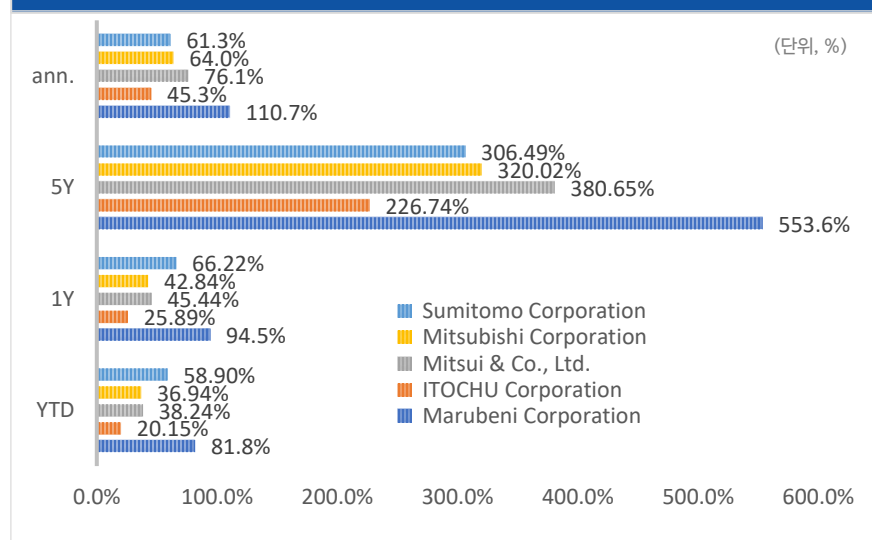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3. 버핏의 일본상사 TOP5는 2026년에도 지속될까?

▶ 일본, 2026년에도 괜찮나요?

- (일본) 달러약세 + 일본의 재정정책이 일본 주식시장 상승 요인
 - 달러약세 등으로 인해 JP Morgan 등 해외 IB의 일본 선호 심리 확대
 - 다카이치 총리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장이 기업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 수출중심 대기업, 반도체, 로봇틱스 등 기술주 상승 기대감 확대
 - 일본 종합상사는 원유*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금융까지 전 산업분야에 연결된 회사로 재무구조가 튼튼하며 장기 성장성을 보유하고 주주환원책(고배당, 자사주매입)을 추구하며, 원자재가격 상승 수혜를 받음
 - 워렌 버핏은 지난 5년간 5개상사에 동일 비중 투자 진행

일본 종합상사 TOP5의 성과 추이 (배당제외, 엔화기준)



* 자료: NH아문디자산운용, Stock Analysis, 각 종목의 배당을 제외한 엔화PR 기준, 2025.12.22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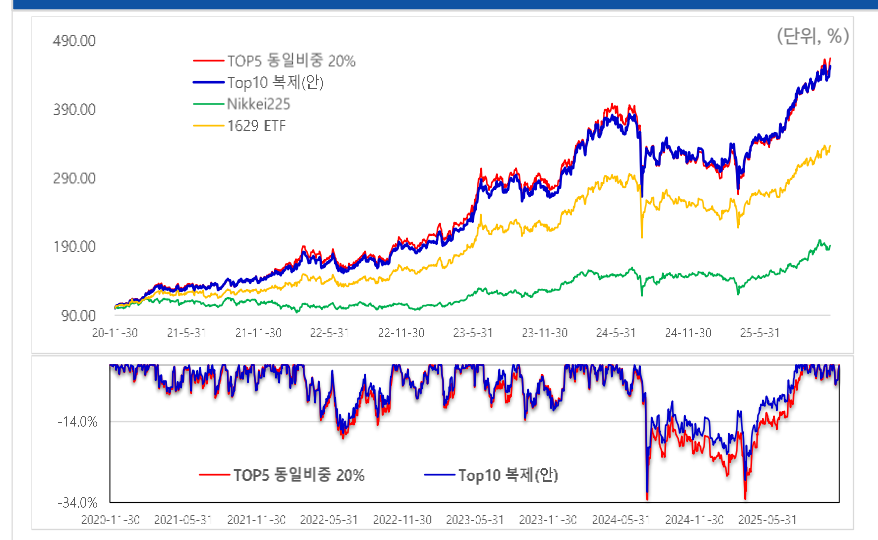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본종합상사 Top5는 지난 5년간 어땠나요?

- (일본종합상사 성과) 일본종합상사 Top5(PR)은 Nikkei225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배당과 엔화 효과 제외
 - (Top5) Mitsubishi, Mitsui, Itochu, Marubeni, Sumitomo
 - (Top10) 일본상사1629 ETF의 상위 TOP10 종목
 - (Top10 복제 모델) ETF와 공모펀드의 MP 종목10% 편입제한을 고려, 일본상사 1629ETF의 Top10 비중 약 85%을 100% 환산한 PR모델
 - (결과분석) Top5 동일비중 20% 모델과, Top10 복제 모델을 비교시 MP 성과는 유사하나, Top10 모델이 회복탄력성과 MDD 측면 우수

일본종합상사 TOP5 동일비중 MP 성과추이, MDD



* 자료: NH아문디자산운용, Bloomberg, 2025.12.12기준, 배당제외, 엔화기준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를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NH-Amundi자산운용(주)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매매 및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상품전략본부	본부장	이진영	02-368-3692	jinyoung.lee@nh-amundi.com
	팀장	김형락	02-368-3672	hyunlark.kim@nh-amundi.com
상품전략팀	대리	고경림	02-368-3671	kyungrim.go@nh-amundi.com
	대리	강병우	02-368-3784	byeongwoo.kang@nh-amundi.com
	인턴	한지혁	02-368-5252	jihyeok.han@nh-amundi.com